

This file has been cleaned of potential threats.

If you confirm that the file is coming from a trusted source, you can send the following SHA-256 hash value to your admin for the original file.

ac1c7e2a3ac8c5ee42591c8bca33fa5a67e468275c5661b56d29dfd35b76eceb

To view the reconstructed contents, please SCROLL DOWN to next page.

- **주요 뉴스:** 미국 주가의 신고가 경신 지속, 주식을 대체할 투자처의 부재 등에 기인
 - 미국 8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34만건으로 17개월래 최저 수준
 - 유로존 7월 생산자물가, 전년동월비 12.1% 상승하여 예상치(11.0%) 상회
 - 중국 시진핑 주석, 혁신 중소기업을 위한 베이징 증권거래소 설립할 계획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8월 고용통계 발표 앞두고 관망 분위기 가운데 주가는 소폭 상승
주가 상승[+0.3%], 달러화 약세[-0.3%], 금리 하락[-1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주간 실업지표 개선 등이 견인
 유로 Stoxx 600 지수는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0.3%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인상 가능성 낮다는 평가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3%, 0.1%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8월 고용통계 관련 경계감 등이 반영
 독일도 미국과 유사한 영향으로 2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158.8원, -3.3원) 0.3% 하락, 한국 CDS 보합

		9/2일	9/1일	전일대비			9/2일	9/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537.0	4,524.1	0.28%	국채 금리 10y	미국	1.28%	1.29%	-1bp
	유럽	474.60	473.12	0.31%		독일	-0.39%	-0.37%	-2bp
	중국	3,597.0	3,567.1	0.84%	CDS 5y	한국	18bp	18bp	0bp
	일본	28,544	28,451	0.33%		중국	33bp	32bp	1bp
	한국	3,175.9	3,207.0	-0.97%	위험 지표	EMBI+	-	349	-
환율	달러지수	92.21	92.45	-0.26%		VIX	16.41	16.11	1.86%
	유로화	1.1875	1.1839	0.30%		WTI유	69.99	68.59	2.04%
	엔화	109.94	110.01	0.06%	원자재	구리	428.4	426.3	0.48%
	위안화	6.4565	6.4599	0.05%		금	1,809.7	1,813.9	-0.23%
	원화	1,161.5	1,157.2	-0.37%					

주: 주가는 미국 S&P500, 유럽 Stoxx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주가의 신고가 경신 지속, 주식을 대체할 투자처의 부재 등에 기인

- 미국 S&P500 지수는 작년 11월 이후 국채금리 급등, 테이퍼링 가능성 등의 악재 속에서도 5% 이상의 조정 없이 상승세 유지.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은 채권 등 다른 자산의 투자 기대수익률이 매우 낮아 주식투자를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
- 즉, 투자자는 주식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채권 투자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향후 기업실적이 시장의 예상에 부합한다면 주식투자의 기대수익률은 4% 수준인 것으로 추정
-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인플레이션, 정치적(세금, 규제 등), 지정학적(무역, 공급망 등) 위험이 높은 시기. 이에 투자자는 이러한 위험에도 주식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자산 투자로 현저히 낮은 수익을 수용할 것인지 선택이 필요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8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34만건으로 17개월래 최저 수준

- 노동부, 이번 결과는 전주(35.4만건) 및 예상치(34.5만건) 모두 하회. 이에 대해 FWDBONDS의 Chris Rubkey는 델타 변이의 확산이 큰 폭의 일자리 감소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평가

■ 미국 7월 제조업 수주, 전월비 0.4% 증가로 시장 예상치(0.3%) 상회

- 상무부, 부문별로는 일차 금속과 일반 기계 등이 호조. 공급 병목 지속과 소비자의 서비스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문 수요가 양호

■ 백악관, 의회에 부채상한 확대 합의를 촉구

- 서한을 통해 민주당과 공화당은 채무불이행을 방지해야 하는 공동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 또한 트럼프 정권 시기에도 3번의 부채상한 확대가 이루어졌다고 참언. 다만 합의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는 미제시

■ 유로존 7월 생산자물가, 전년동월비 12.1% 상승하여 예상치(11.0%) 상회

- 통계청에 따르면, 전월비 기준으로는 2.3% 상승. 이번 결과는 에너지와 중간재 가격의 큰 폭 상승 등에 기인

■ 중국 시진핑 주석, 혁신 중소기업을 위한 베이징 증권거래소 설립할 계획

-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혁신지향 중소기업을 위한 1차 플랫폼으로 설립하여 이들 기업의 혁신주도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 이번 결정은 중국 금융서비스의 구조개혁과 자본시장의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

■ 일본은행 통화위원, 코로나 19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

- 카타오카 타카시 위원은 해당 이유 등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선제적 지침의 변경을 통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물가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첨언

■ 유엔세계식량기구(FAO), 8월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127.4로 3개월만에 전월비 상승

- 일부 곡물가격과 설탕, 식물성 기름 등이 큰 폭으로 상승. 곡물지수는 전월비 3.4% 올랐고 설탕은 9.6% 상승. FAO는 2021년 세계 곡물 수확량 전망치를 27.9억톤으로 제시하여 이전의 28.2억톤에서 하향 조정

■ 브라질 전 중앙은행 총재, 구조개혁 시행하지 않으면 재정 신뢰 약화될 우려

- 아르미니오 프라가 전 총재는 재정적자 증가, 정치적 불안 등이 경제성장과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구조개혁을 통해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언급

■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상 가능

- 알렉세이 자보트킨 부총재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해당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 다만 4/4분기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진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9/2 현지시각 기준)

- 미국 7월 무역수지(억달러): -701, 6월(-732), 예상치(-710)

■ 주요 경제 이벤트(9/3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고용통계, 8월 ISM 서비스 PMI, 유로존 7월 소매매출
- 미국·유로존·영국 8월 마켓 종합 PMI, 중국 8월 차이신 서비스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채권시장, 연준 의장의 의도와 다른 방향성을 전개할 가능성 - 블룸버그

(Traders Set to Test Powell Push to Delink Hikes From Taper)

- 잭슨홀 미팅 이후 채권시장은 연준의 의도대로 양적완화 축소와 금리인상의 시점을 별도로 인식하며 2023년 금리인상 개시에 무게. 하지만 8월 고용통계가 예상과 부합할 경우 9월 FOMC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인상 개시 등의 신호가 반영될 가능성
- BNP 파riba의 Shahid Ladha는 파월 의장의 양적완화와 금리인상 분리 의도가 최종적으로 성사되기 어렵다고 지적. WisdomTree Investments의 Kevin Flanagan는 시장이 2022년 금리인상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 인플레이션 압력, 일부 지표로는 둔화되는 추세가 뚜렷 - Financial Times

(Inflation may be falling, not accelerating)

- 미국과 유로존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수년간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연준과 ECB의 기준선을 상회함에 따라 일시적·지속적 여부 논란이 심화. 하지만 최근 물가상승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주요 경제지표들에서 포착
- 기저효과가 반영된 미국의 7월 전년대비(YoY) CPI의 급등과 달리 전월비 CPI는 금년 2월 이후 가장 적은 폭으로 상승. 개인소비지출도 최근 4개월간 하락하며 2월 이후 최저치 기록
- 동일 방법으로 측정한 유로존 7월 CPI(전월비) 상승폭은 팬데믹 이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아울러 미국의 대규모 재정부양책은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전세계 노동자 부족, 식품 공급망 혼란을 초래하여 식량가격 상승을 유도 - 블룸버그

(Your Food Prices Are at Risk as the World Runs Short of Workers)

■ 글로벌 주식 투자자, 강세장 지속 판단에 임금 인플레이션을 주시 - Financial Times

(Investors eye labour market inflation risks)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ikyoon@kcif.or.kr